복식문화연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제 16 권 제 5 호, (2008. 10), pp.937~954

朝鮮時代 袞龍袍 연구

금 종 숙† · 고 부 자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A Study on *Gollyongpo* in the Joseon Dynasty

Jong-Suk Keum† and Bou-Ja Koh
Dept. of Traditional Costum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08. 5. 15. 접수 : 2008. 10. 31. 채택)

Abstract

The *Gollyongpo* was worn by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in Joseon dynasty as an ordinary wear. The research on the *Gollyongpo* is focused on the historic record of Joseon dynasty, *Joseonwangjosillok*. This study will analyze literature, paintings and relics. First, I have researched Ming's(China) representative document *daminghuidian*, and excavated relics from the tomb *dingling*. I examined the usage and characteristic, through various remaining literature data, artifacts and paintings. The *Gollyongpo* was worn for the various ceremonies as well as an ordinary wear. According to the periode, the style and color had changed. The King wore the red *Gollyongpo* with 5 clawed dragon pattern, the Crown Prince wore black one with 4 clawed pattern, and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wore black one with 3 clawed dragon emblem. After the Daehan Empire, the Emperor wore gold outfit and the Crown Prince wore red outfit. *Sonyongpo* recorded in the *Gungjungbalgi* is concerned as *Gollyongpo* with narrow straight sleeve, one of the Sejong University Museum's Collection. There is some Possibility that the *Gollyongpo* painted in *Bongsado* is woven with dragon design, I would leave this matter for next research task.

Key words: Gollyongpo(곤룡포), Sonyongpo(소룡포), Sanghoki(상복), Bo(보).

Ⅰ. 序 論

袞龍袍는 朝鮮時代 王과 王世子가 일상적으로 政事를 볼 때 착용하는 常服으로 翼善冠·玉帶·黑皮靴로 일습을 이루며, 이를 時事服이라고도 하였다. 곤룡포는 團領에 金絲로 자수된 龍紋補를 부착하며, 국정 업무는 물론 朝參과 勅書맞이, 宮中의 進宴 및 殿壽衣로도 입었다.

이러한 조선 시대 곤룡포는 世宗 26年(1444)에 처음으로 明나라의 親王制에 따라 다홍색을 하사 받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袍의 色과 補의 紋樣 및 帶의 장식 등에 차등을 두어 신분구별을 하였고, 光武 元年(1897) 제정 때는 복제에서 황제의 복색을 구비하게 되었다.

朝鮮時代 袞龍袍 연구의 참조 자료는 대부분 『朝鮮王朝實錄』을 중심[1]으로 하였으며, 團領을 王과 文武百官으로 분류하여 王과 王世子의 곤룡포를 常服

† 교신저자 E-mail : keumjsuk@hanmail.net

1) 高光林, "袞龍袍에 關한 硏究," *仁川敎育大學校論文集*, 9권(1974).
金美子, "袞龍袍의 形態에 對한 硏究," *서울여자대학교논문집*, 7호(1978).

과 時服으로 나누어 제시[2]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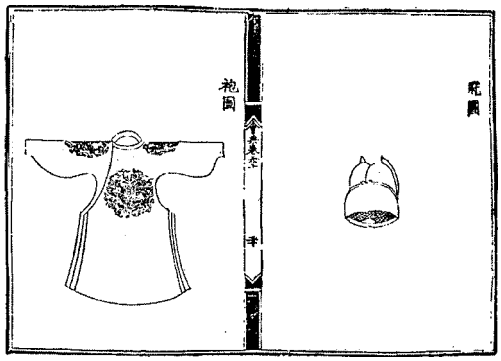
본고에서 참조 자료는 明代의 『大明會典』과 定陵의 遺物 및 繪畵資料와 朝鮮時代의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하여 『嘉禮都監儀軌』·『國婚定例』·『尙方定例』·『國朝五禮儀』·『國朝續五禮儀序例』·『궁중발긔』·『大韓禮典』·『豊公遺寶圖略』 등으로 하였다. 遺物로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세종대학교 소장품을 참조하였으며, 繪畵 및 寫眞資料를 통해 착용용도 및 특징을 알아보았다.

Ⅱ. 中 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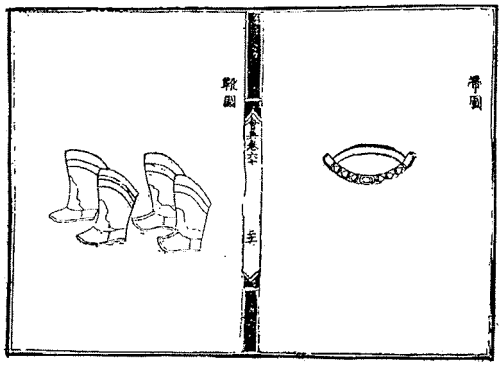
袞龍袍는 明의 頒賜로 시작되었으므로 따라서 服飾制度는 朝鮮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거 자료로 明 시대의 文獻과 遺物, 繪畵資料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文獻

明代의 문헌자료는 『明史』나 『大明會典』이 대표적이다. 이중에서 朝鮮時代 복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大明會典』을 근거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또한, 圖說이 있어 그 모양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1~2).



〈그림 1〉 布와 冠[3].



〈그림 2〉 靴와 帶[3].

〈표 1〉 『大明會典』의 常服

구분		冠	袍	帶	靴
皇帝	洪武3年(1370)	烏紗折角向上巾	盤領窄袖袍	束帶 間用金玉琥珀透犀	
	永樂3年(1405)	烏紗帽。折角向上 (今名翼善冠)	黃色 盤領窄袖 前後及兩肩各金織盤龍一	用玉	以皮爲之
皇太子	洪武元年(1368)	烏紗折角巾			
	永樂3年(1405)	烏紗折角向上巾 (亦名翼善冠 親郡王及世子俱同)	赤色 盤領窄袖 前後及兩肩各金織盤龍一	用玉	皮爲之
親王	永樂3年(1405)	冠袍帶靴俱與 東宮同			
世子	永樂3年(1405)	冠袍帶靴俱與 親王同			
君王	永樂3年(1405)	冠袍帶靴俱與 親王同			

2) 문공화, "조선 시대 圓領의 着用規例와 實例에 관한 硏究"(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3) *大明會典*, 圖說.

이를 보면 皇帝와 皇太子의 常服의 규모는 같으나, 色은 황제는 黃色인데 황태자는 赤色이다. 親王의 常服은 皇太子와 같다. 이때 色은 二等遞降에 의하여 頒賜되었으므로 親王禮에 따라 大紅色이다.

2.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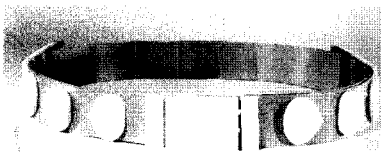
明代의 대표적인 遺物(그림 3~6)로는 1958년 北京 定陵 지하궁전에서 출토된 神宗皇帝(1563~1620년)의 衮服이 있다. 이와 함께 金翼善冠, 烏紗翼善冠, 玉革帶 등도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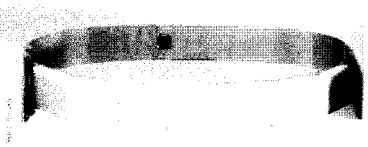
衮服에는 등근 團龍紋이 12개 있는데, 어깨에 두 개, 앞과 뒤 각 3개씩, 양쪽무에 각 2개씩 배치되었다.

〈그림 3〉 絳絲十二章衮服 (*中國織繡服飾全集* 第4卷(2004), p. 200).

〈그림 4〉 金翼善冠 (*中國織繡服飾全集* 第4卷(2004), p. 247).

〈그림 5〉 烏紗翼善冠 (*中國織繡服飾全集* 第4卷(2004), p. 247).





〈그림 6〉 玉革帶 (*中國織繡服飾全集* 第4卷(2004), p.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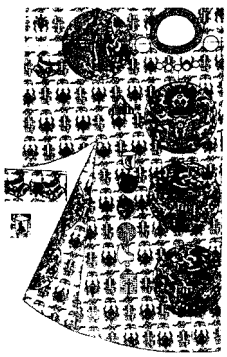
그림 중간의 團龍은 앞을 보고 있는 坐龍, 우측을 향한 行龍, 좌측을 향한 行龍 3종류가 있다. 용의 몸은 새 깃털과 금실과 각색 실로 수 놓았으며[4] 12章紋이 있다. 〈그림 7〉은 이를 複製한 것이며, 圖(그림 8)에는 團龍과 12章紋의 모양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3. 繪畫

회화로는 皇帝像(그림 9~14)이 있다. 가장 이른 시대의 것으로 敦煌莫高窟 第四〇九 窟壁畵의 西夏皇帝像이 있는데, 圓領窄袖團龍袍를 착용하고 있다. 또

4) 黃能馥 · 陳娟娟, *中華歷代服飾藝術*(北京: 中國旅遊出版社, 1999), p. 379. "圖中團龍有向坐龍, 右側行龍, 左側行龍三种, 龍身全用雀羽綫, 余綫及各色絲綫所繡."

〈그림 7〉 그림 3 遺物 複製(*中國織繡服飾全集* 第4卷 (2004), p.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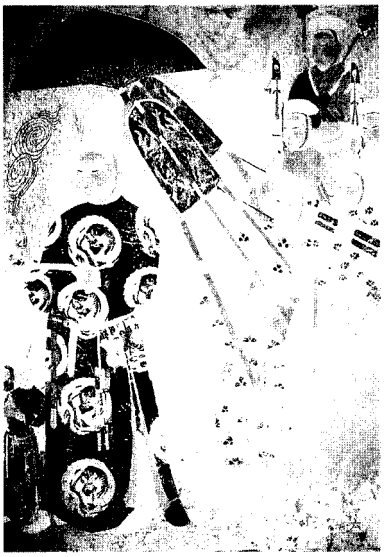


〈그림 8〉 遺物圖(黃能馥 · 陳娟娟(1999). *中華歷代服飾藝術*, p. 379).

한, 唐太宗像에는 團龍이 양어깨와 앞뒤 2개씩, 明代의 成祖皇帝像에는 8개가 그려져 있다. 武宗과 世宗皇帝像은 定陵의 墓主인 神宗皇帝像과 색만 다를 뿐 모양이 같다. 옷의 구분은 章紋에 대한 명칭으로 하였는데, 12장문이 있는 것은 袞服, 章紋이 없는 것은 龍袍나 窄袖袍라고 하였다. 이러한 중국 복식의 명칭에 대한 것은 연구 과제로 남긴다.

Ⅲ. 朝 鮮

朝鮮時代 자료는 여러 가지 문헌과 유물로는 국립고궁박물관 및 세종대학교박물관 소장품, 회화로는 어진 및 《奉使圖》가 있다. 末期의 사진 자료도 참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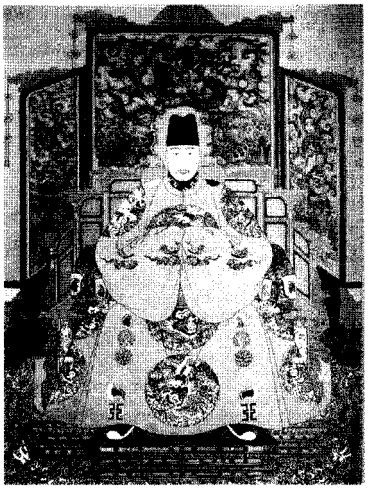
〈그림 9〉 圓領窄袖團龍袍. 西夏皇帝像(*中國織繡服飾全集* 第4卷 (2004), p. 36).

〈그림 10〉 黃綾窄袖袍. 唐太宗像(*中國織繡服飾全集* 第3卷(2004), p.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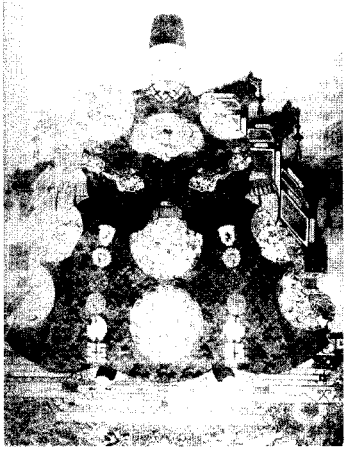
1. 文獻

『朝鮮王朝實錄』, 『嘉禮都監儀軌』, 『國婚定例』, 『尙方定例』, 『國朝五禮儀』, 『國朝續五禮儀序例』,

〈그림 11〉 八團龍紋袍.
明成祖皇帝像(黃能馥 · 陳娟娟 (1999). *中華歷代服飾藝術*. p. 338).



〈그림 12〉 十二章衮服.
明世宗皇帝像(*中國織繡服飾全集* 第4卷 (2004), p. 151).



〈그림 13〉 十二章衮服.
明武宗皇帝像(*中國織繡服飾全集* 第4卷(2004), p. 152).

〈그림 14〉 十二章衮服.
明神宗皇帝像(局部)(*中國織繡服飾全集* 第4卷(2004), p. 153).

『공중불긔』, 『大韓禮典』, 『豊公遺寶圖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朝鮮王朝實錄』[5]

王室의 常服 착용예는 頒賜, 조서나 칙서 맞이, 망배례, 배표의, 사신 맞이, 敎書頒降儀, 종묘 참배, 관례나 책례, 연향, 殮襲衣 등에 나타나고 있다.

5) 현재 국역된 『朝鮮王朝實錄』에는 衮冕, 衮服, 衮袍, 冕服, 龍衮, 龍袍, 龍章, 蟒龍 등의 단어가 곤룡포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衮'자를 모두 '곤룡포'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좀 더 신중히 분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衮龍袍와 龍袍, 衮袍, 王室의 時服과 常服은 해당되는 것만을 발췌하였다.

이 중에서 중국에서 頒賜한 것과 喪禮로 착용한 사례 및 王과 王世子의 袞龍袍의 색의 변화 등을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1) 明에서 頒賜

곤룡포는 의례적으로 頒賜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기록은 世宗 26年(1444)에 처음 보인다. 그러면 곤룡포가 頒賜되기 전에는 어떠한 옷이 대체가 되었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時服'이라는 명칭은 王과 王世子의 복식에서 太宗 6年(1406) 4月부터 純祖 19年(1819) 3月까지 보인다. 왕의 時服[6]은 곤룡포가 頒賜되기 전인 太宗 6年(1406)에서 世宗 23年(1441) 12月까지 보이고, 후에 文宗 卽位年(1450) 7월에 明使를 賀禮할 때와 景宗 즉위년(1720) 11월에 淸使를 접견할 때에 착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王의 常服 頒賜는 世宗代부터 中宗 · 明宗代까지 계속되었다. 世宗 20年(1438) 1月에 明에 頒賜를 奏請[7]하였으나, 그해 5月의 勅書에 "본국의 관복 제도를 준수하라."[8]고 하여 頒賜 받지 못하였다. 이 후 世宗 25年(1443) 12月에 護軍 金涓으로 謝恩使를 삼아 冠服(면복을 의미)의 頒賜를 위해 北京에 갔으며[9], 그 다음 해인 26年(1444) 3月에 면복과 함께 常服 3襲이 頒賜되었다. 世宗代에는 織金에 색은 紅色이며, 피륙은 紵絲 · 紗 · 羅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후 中宗 34年(1539) 11월에는 勅書와 함께 곤룡포만이 頒賜되었으나, 이후 仁宗과 明宗朝에도 면복의 사여는 있었으나 곤룡포의 사여는 없었다. 또, 宣祖 20年(1586) 8月에는 中宗朝와 마찬가지로 大紅袍絳蟒衣彩段만이 별도로 頒賜되었다. 이후 常服이 明宗代는 2年(1547) 10月과 10年(1555) 2月, 10年(1555) 6月에 각 한 벌씩 頒賜되었다.

(2) 喪禮 : 殮襲衣

王室의 常服은 襲衣, 小斂衣, 大斂衣, 梓宮衣褥 등에도 사용되었다. 이 중 王의 殮襲衣褥는 世宗 五禮儀와 肅宗, 英祖, 正祖, 純祖, 高宗, 純祖代에 기록되어 있다(표 3). 피륙[織物][10]은 대부분 多紅雲紋緞이나 甲紗이며, 예외로 正祖代의 袞袍는 眞紅雲紋緞이나 鴉靑大緞을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先王의 곤룡포를 후대왕의 大斂이나 梓宮衣褥에 넣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肅宗 46年(1720) 6月에 대렴할 때 '孝宗大王이 입던 袞龍袍를 위에 顯宗大王이 입던 곤룡포를 아래에 넣었다.'[11] 또한, 正祖 24年(1800) 7월에도 재궁에 채워 넣은 의대로 '英廟가 입었던 옷으로 眞紅雲紋大緞袞袍와 莊獻世子가 입었던 鴉靑大緞袞袍[12] 등이 있다'.

---

6) 시복에 대하여 '조선전기 왕실의 시복은 면복을 대신하면서 조복이나 常服보다 上位服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國朝五禮儀』가 제정되기 이전은 면복의 기능으로, 『國朝五禮儀』가 제정된 조선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상복과 같은 격으로 降等된 것이다. 왕의 시복은 경우에 따라 융복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 조선 시대 冠禮와 관련된 시복은 왕조에 따라 단령, 직령, 도포 등의 의미로 변천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공화, *Op. cit.*, pp. 89-90.

7) *世宗實錄* 卷 80, 世宗 20年 1月 丙午, '洪武三年七月間本國高麗恭愍王王顓時準中書省咨節該欽奉 聖旨賜高麗王冠服內一件冕服九章朝覲及祭祀之服一件遠遊冠絳紗袍受陪臣朝見之服後至永樂元年間臣父先臣恭定王諱欽蒙特賜冕服九章凡遇 聖節正至及迎接詔書祭祀等項時分欽依服用行禮外受陪臣朝見及其餘迎接勅書常時視事合用冠服未蒙頒降恐違朝廷之制伏望 聖慈所有各件冠服頒降服用便益'.

8) *世宗實錄* 卷81, 世宗 20年 5月 丙申, '奏請遠遊冠絳紗袍及常時視事冠服事下禮部今本部奏遠遊冠服已行南京查永樂中如果本頒卽製頒賜其常時視事冠服王自祖宗以來本國必有冠服王官遵先王之制勿違庶幾協禮之正干欽體朕意'.

9) *世宗實錄* 卷102, 世宗 25年 12月 戊戌, '以護軍金涓爲謝恩使加定押物齎請冠服咨文追及柳守剛偕赴京師'.

10) 피륙이란 날실[經絲]과 씨실[緯絲]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짠 옷감을 말하며, 명칭은 재료와 짜임새 · 색 등에 따라 다양하다. 피륙 중에는 무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무늬가 있는 것을 "무늬피륙[紋織物]"이라고 한다.
高富子, "조선 시대 피륙[織物]의 무늬," *朝鮮時代 피륙[織物]의 무늬*,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2002), p. 195.

11) *肅宗實錄* 卷65, 肅宗 46年 6月 丁未, '內侍等移奉 大行王體于橫木上執事等請諸臣奉審務令上下均正然後塗奉下于梓宮納落髮落齒左右于足爪甲錦囊又納平天冠于上赤烏于下又以 孝宗大王所御袞龍袍納于上 顯宗大王所御袞龍袍納于下'

〈표 2〉『朝鮮王朝實錄』에 頒賜된 기록

시 기	내 용
世宗 26年 3月 26日 (1444)	常服香皂皺紗翼善冠一頂 玉帶一·袍服二襲各三件 紵絲大紅織金袞龍 暗骨朶雲袍青暗花裕襯 黑綠暗花貼裏 紗大紅織金袞龍暗骨朶雲袍 青暗花裕襯 鸚哥綠花貼裏 羅大紅織金袞龍袍 青素裕襯 柳青素貼裏 皂鹿皮靴一雙大紅熟綃冠箱一大紅熟綃單包袱五珠紅漆服匣 ·
中宗 34年 11月 1日 (1539)	皇帝賜袞龍袍·衣及內供而不製送者必以異國衣服體制不同故也其意則欲其製衣而着之也 以此作袍耶作帖裏耶行幸時帖裏則似無皇帝欽賜之意
明宗 2年 10月 3日 (1547)	朝鮮國王奏進紙張具見忠敬合賜銀一百兩常服紵絲紗羅各一襲差來使臣賞綠段二表裏 遣寫勅諭王
明宗 10年 2月 9日 (1555)	使回特賜銀一百兩常服紵絲紗羅各一襲以示勸酬之意
明宗 10年 6月 16日 (1555)	皇帝勅諭遣使來奏進紙張具見恭順睦用嘉納使人回特賜銀一百兩常服紵絲紗羅各一襲 以示眷答至意欽哉故諭

〈표 3〉 王室의 賜襲衣襨

	목욕	습	소렴	대렴	재궁의대
世宗 五禮儀	明衣 [白綃單衣]	袞龍袍一 【卽胸背織龍圓領 】			
肅宗				孝宗大王所御袞龍袍 顯宗大王所御袞龍袍	
英祖		袞龍袍多紅雲紋大緞 毛羅翼善冠		袞龍袍朝服	多紅雲紋緞袞龍袍
正祖	明衣 方巾	袞龍袍 翼善冠	袞袍	袞袍 [金龍胸背具]	眞紅雲紋緞袞袍 金龍胸背具, 英廟所御衣襨 鴉青大緞袞袍 莊獻世子 所御衣襨
純祖			龍袍		多紅雲紋緞龍袍 多紅雲紋甲紗龍袍
高宗				黃雲紋緞龍袍	
純宗			黃袍 一卽胸 背織龍圓領		

12) *正祖實錄* 卷54, *正祖* 24年 7月 癸未, "賜梓宮衣襨眞紅雲紋大緞袞袍【金龍胸褙具 英廟所御衣襨】鴉青大緞袞袍【莊獻世子所御衣襨】.

(3) 착용 사례

王과 王世子의 常服과 時服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常服은 朝鮮初期 면복이나 제복, 조복의 제도가 완성되기 이전 왕의 迎詔勅儀·拜表儀 등에 착용하여 면복과 같은 上位服 기능을 하였다. 成宗代에 이르면 輕服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光海君代에 지금의 常服의 의미로 변천된 것이다[13]. 또한, 사신 맞이·望闕禮·敎書頒降儀·謁廟儀·朝參儀·배릉이·알성의·冠儀·册禮·문무과방방의·탄일조하의·입학의·사부빈객의·연향·문소전추석제·음복연의·대전헌수의·어가 맞이 등에서도 사용하였다.

時服은 朝鮮 初期에는 常服보다는 上位服의 개념이다. 기록에는 王의 경우는 袞龍袍를 頒賜받기 前인 太宗과 世宗代에 집중적으로 보이며, 이후 文宗과 景宗代에 한 건씩 보인다. 용도는 칙서와 사신맞이, 망궐이나 망묘례나 배표의, 문·부과 방방의, 종묘참배, 文昭殿秋夕祭, 朝參儀에 착용되었다. 王世子는 太宗代부터 世宗과 世祖代에 집중적으로 보이며, 光海君代부터 純宗代까지는 주로 冠禮 때에 논의되기도 하였다. 특히 현종 11년(1670) 2월에 '현재의 시복은 바로 龍袍인데…'라고 하여 朝鮮時代 中期에서 後期에 이르러서는 常服과 같은 격으로 변천된 것을 알 수 있다. 용도는 칙서와 사신 및 어가 맞이, 음복연의·조참의·문소전 추석제·飮福衮衣·탄일조하의·大殿獻壽儀 등에 사용하였다.

(4) 色 변화

王의 常服으로서 곤룡포의 頒賜는 世宗 26年(1444) 3月에 紵絲大紅織金袞龍暗骨朶雲袍·紗大紅織金袞龍暗骨朶雲袍·羅大紅織金袞龍袍 세 벌이다. 모두 대홍색에 織金으로 된 퍼륙이다. 補는 世宗 31年(1449) 9月에 "예전에 四爪龍衣를 입었었는데, 중국에서의 친왕과 같이 五爪龍을 입었으며, 세자로 하여금 四爪龍을 입게 하였다."[14]라고 하여 국말까지 왕은 오조룡, 왕세자는 사조룡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왕의 곤룡포 색은 端宗, 成宗, 明宗代에는 鴉青色으로 나오는데, 이는 誥命 전의 색일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成宗代에는 평상시 綠色이었으나, 高宗 皇帝등극 후 황색이 되기 전까지는 홍색을 사용하였다. 王世子의 곤룡포는 中宗代까지 아청색이었으나, 宣祖代는 27年(1594)까지 적색을 사용하다가 29年(1596)에는 다시 흑색으로 바뀌게 되고, 이후 아청색을 착용하여 왕의 복색과 차등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표 4).

2) 『嘉禮都監儀軌』

王의 곤룡포는 六禮를 행할 때는 입지 않기 때문

〈표 4〉 곤룡포 색 변화

구분	世宗 26年	端宗 卽位年	成宗			中宗 33年	明宗 卽位年	宣祖			光海君 2年	英祖 52年	高宗 38年
			1年	9年	19年			25年	27年	29年			
王	大紅織金	鴉青色	鴉青色	綠色			鴉青色	黑色				多紅	黃色
	常服	迎勅儀(告命前)		常服			使臣迎接告命前	圍領中國差官接見				襲, 大斂, 梓宮衣襚	
王世子					鴉青色	鴉青色			赤色	黑色	鴉青色		

13) 문공화, *Op. cit.*, p. 57.

14) *世宗實錄* 卷125, 世宗 31年 9月 己卯, '昔予服四爪龍衣後聞中朝親王服五爪龍予亦服之以待天使其後 帝賜五爪龍服今令世子服四爪龍則於我無嫌於朝廷法制亦無妨焉'.

〈표 5〉『嘉禮都監儀軌』- 衮龍袍

신분	嘉禮(年)	服別	上衣	頭飾	衣次와 치수
王世子	昭顯世子(1627)	衣褥	團領 ·	翼善冠 ·	
	顯宗明聖后(1651)	衣褥	衮龍袍二次	翼善冠 一部	鴉青雲紋正緞 一匹 唐毛羅 一尺五寸
	肅宗仁敬后(1671)	衣褥	團領一	翼善冠 ·	衮龍袍次鴉青雲紋正緞諸具
	景宗端懿后(1696)	衣褥	團領 · 衮龍袍次	翼善冠 一部	鴉青正緞一匹 毛羅 一尺五寸
	景宗宣懿后(1718)	衣褥	衮龍袍 二次	翼善冠 一部	鴉青雲紋正緞一匹
	眞宗孝純后(1727)	衣褥	團領 一衮龍袍次	翼善冠 ·	鴉青雲紋正緞諸具
	莊祖獻敬后(1744)	衣褥	團領 · 衮龍袍次	翼善冠 ·	鴉青雲紋正緞諸具
	文祖神貞后(1819)	衣褥	衮龍袍 一件	翼善冠 ·	鴉青小雲紋正緞 一匹
	純祖純明后(1882)	法服	衮龍袍一件	翼善冠 ·	鴉青小雲紋正緞 一匹
王世孫	正祖孝懿后(1762)	法服	衮龍袍 一件	翼善冠一部	

에 大殿衣褥 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同宇宴에 冕服을 입고 예를 행한 후 왕비와 함께 幄次에 들어갈 때 익선관에 곤룡포로 갈아 입었다. 王世子는 冊嬪儀에 입고 또 동뢰연에 遠遊冠과 絳紗袍를 입었다가 宴이 끝난 후에 익선관에 곤룡포로 갈아 입었다. 歷代『嘉禮都監儀軌』에 보이는 곤룡포는 〈표 5〉와 같다. 이 중 昭顯世子嘉禮를 보면 團領이 있는데, 이는 곤룡포일 것으로 본다. 〈표 5〉에서 왕세자의 곤룡포는 모두 鴉青色으로 왕의 홍색포와 색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왕세손은『正祖孝懿后嘉禮都監儀軌』에 한 건뿐이다[15].

3)『國婚定例』·『尙方定例』

『國婚定例』에서는 〈표 6〉과 같이 王世子 嘉禮時 衣褥로 한 건이 있다.

『尙方定例』에서 王의 곤룡포는 誕日이나 年例에 進上하는데 大紅色이며 운문단으로 되어 있다. 王世子는 誕日이나 年例에 進獻하는 것과 陵幸·親臨閱武·親臨慕華觀武才·親幸北漢·迎勅擧動·進宴·冊禮·冠禮 때에 사용되었으며, 鴉青色에 운문단이다. 특이한 것은 세자궁가례시 법복의 피륙이 유일하게 小雲紋緞이라는 점이다.

4)『國朝五禮儀』·『國朝續五禮儀補序例』

『國朝五禮儀』에 칙서를 맞이할 때 왕은 상복인 익선관에 곤룡포를 착용하였다.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圖說에는 殿下視事服으로 衮龍袍와 翼善冠·帶·靴가 있으며, 王世子書筵服制度에는 帶, 王世孫講書服制度에는 衮龍袍가 있다 (표 7). 왕과 왕세자의 복식에서 차이점은 袍의 색으로 왕은 대홍색인데, 왕세자는 흑색이다. 옥대는 왕의 것은 무늬를 새기고, 왕세자는 무늬가 없다. 왕세자와 왕세손의 차이는 왕세자는 옷의 앞뒤에 金四爪圓龍補를 붙이고 옥대를 차는데, 왕세손은 金三爪方龍補를 붙이고 水精帶를 차고 있는 점이다.

5)『궁중복기』

大韓帝國 선포 이전과 이후의 衮龍袍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선포 이전 옷의 色은 王의 것은 多紅, 王世子는 鴉青이었다. 선포 이후는 고종은 黃, 순종은 多紅,

15) 劉頌玉,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서울: 修學社, 1992). pp. 118-125, pp. 150-152, p. 158.

〈표 6〉『國婚定例』·『尙方定例』 - 衮龍袍

문 헌	착용자	용 도	색	衣	頭飾	
『國婚定例』乾	世子宮	王世子 嘉禮衣襨		衮龍袍壹件	翼善冠壹部	
『尙方定例』凡例	大殿	誕日進上			翼善冠壹部	毛羅
		年例進上			翼善冠	耳掩次唐獐皮貳拾令
	世子宮	節日進獻 端午			翼善冠壹部	毛羅
		年例進獻			翼善冠	耳掩次唐獐皮貳拾令
『尙方定例』別例下	祟單子	陵幸時	大紅	龍袍次大紅雲紋匹緞壹疋 大紅襯胸背左右肩龍具壹部	馬尾頭冕貳部 翼善冠壹部	毛羅
	票單子	親臨閱武時	大紅	龍袍次大紅雲紋匹緞壹疋 大紅襯胸背左右肩龍具壹部		
	祟單子	親臨慕華觀武才時	大紅	龍袍次大紅雲紋匹緞壹疋 大紅襯胸背左右肩龍具壹部	翼善冠壹部	毛羅
	祟單子	親幸北漢時	大紅	龍袍次大紅雲紋匹緞壹疋 大紅襯胸背左右肩龍具壹部	馬尾頭冕貳部	
	票單子	迎勅擧動時	大紅	龍袍次大紅雲紋匹緞壹疋 大紅襯胸背左右肩龍具壹部	翼善冠壹部	毛羅
	大殿	進宴時	大紅	龍袍次大紅雲紋匹緞壹疋 大紅襯胸背左右肩龍具壹部	翼善冠壹部	毛羅
	世子宮	進宴時	鴉青	龍袍次鴉青雲紋匹段壹疋 鴉青襯胸背左右肩龍具壹部	翼善冠壹部	毛羅
		世子宮冊禮時	鴉青	龍袍次鴉青雲紋匹段壹疋 鴉青襯胸背左右肩龍具壹部	翼善冠壹部	
		世子宮冠禮時	鴉青	龍袍次鴉青雲紋匹段壹疋 鴉青襯胸背左右肩龍具壹部	馬尾頭冕貳部	
		世子宮嘉禮時法服	鴉青	龍袍壹次鴉青小雲紋匹緞壹匹	翼善冠壹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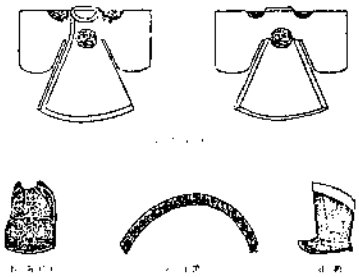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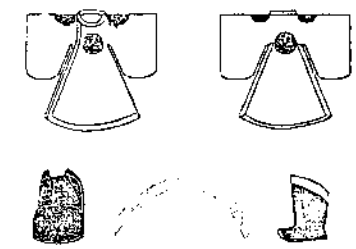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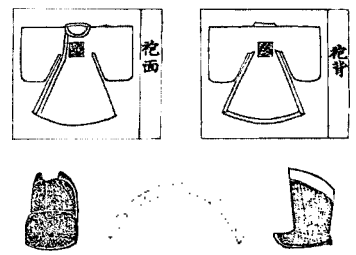
英親王은 紫的이었다. 피륙은 운문단, 운문갑사, 漢緞, 공사, 운문공사 등을 사용하였다.

'소농포'라는 기록은 당미(1907) 정월이십칠일 英親王관례시 의복볼긔, 을수(1905) 정조두분마마의뒤 英親王의복볼긔, 을사(1905)구월이십팔일 두분마마 탈복의뒤 순비마마의복볼긔, 을사(1905) 칠월억만세 탄일 두분마마英親王의뒤볼긔에 보인다. 이는 조선 말기 문무백관의 소례복과 마찬가지로 세종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소매통이 좁은 곤룡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6) 『大韓禮典』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여 중국과 君臣關係를 청산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관복을 제정한 내용이 있다. 『大明會典』를 정비한 것으로 服制를 보면 常服은 "황제의 袍는 황색으로 등글고 소매의 폭이 좁은데 앞뒤와 양 어깨가 각각 금으로 짠 盤龍이 하나씩 있으며, 帶는 옥을 쓰고, 靴는 가죽으로 한다."고 하였

〈표 7〉『國朝續五禮儀補序例』- 袞龍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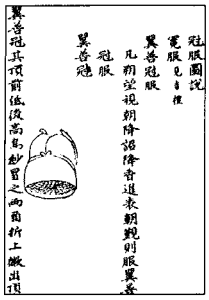
구분		내용	圖說
殿下 祝事服圖說	翼善冠	冠以毛羅裏之兩大角兩小角貼後而上	
	袞龍袍	袍以大紅緞爲之夏用大紅紗袍前後貼金五爪圓龍補袍左右肩同	
	玉帶	帶以雕玉爲之裏以大紅緞而金畵之	
	靴	靴以黑麂子皮爲之夏用黑黍皮	
王世子 書筵服制度	帶則有圖		
	翼善冠	冠同殿下冠(冠禮前 空頂帽)	
	袞龍袍	袍以黑緞爲之夏用黑紗制同殿下袍而袍前後貼金四爪圓龍補袍左右肩同	
	玉帶	帶以不雕玉爲之裏以黑緞而金畵之	
	靴	靴同殿下靴	
王世孫 講書服制度	袞龍袍有圖		
	翼善冠	冠同王世子冠(冠禮前 空頂帽)	
	袞龍袍	袍以黑緞爲之夏用黑紗制同王世子袍而惟袍前後貼金三爪方龍補袍左右肩無貼	
	水精帶	帶以水精爲之不雕同王世子玉帶裏以靑緞而金畵之	
	靴	靴同王世子靴	

다. 황태자는 "冠은 烏紗折角向上巾이고, 袍는 적색으로 깃이 둥글며, 소매와 폭이 좁은데 앞뒤와 양 어깨에 각각 금으로 짠 盤龍이 있으며, 帶는 옥을 쓰고, 靴 는 가죽으로 한다."고 하였다(그림 15~17). 補는 왕과 왕세자를 구분하지 않고 五爪龍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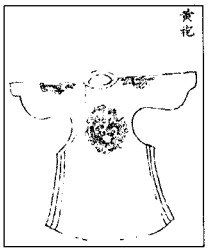
7)『豊公遺寶圖略』[16]

일본 승려 眞靜에 의해 정리되고 도식되었기 때문

16)『豊公遺寶圖略』은 後陽成(1586~1611년) 朝 豊臣 집권때 진상된 귀중품들을 그림으로 그려 만세에 전하도록 책으로 엮은 것이다. 豊公의 御衣 · 甲冑 등 服飾類와 文房具類, 茶器 등을 포함한 일본 유품과 宣祖23年(1590) 通信使 편에 豊臣秀吉에게 전해진 宣祖의 국서와 別幅에 기록된 土產品 目錄 및 왕실복식이 그림으로 재현되어 있다.
朴聖實, "豊公遺寶圖略에 나타난 宣祖朝 王室服飾," *韓國服飾* 第12號(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1994), p.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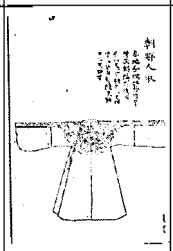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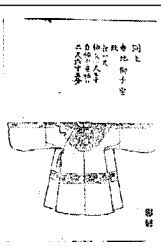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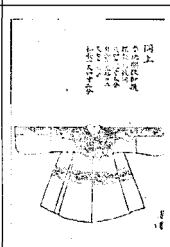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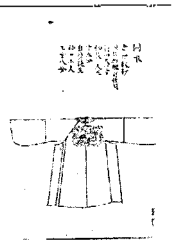
〈그림 15〉 翼善冠[17].



〈그림 16〉 黃袍[17].

〈그림 17〉玉帶[17].

〈표 8〉『豊公遺寶圖略』- 團領

구분	1	2	3	4	5	6
그림						
색	赤地	赤地	赤地	赤地	赤地	赤地
특징	金欄(牧丹 唐草 麒麟) 前後同 (소매 상부 장식)	紋紗(麒麟) 前後同 (무의 표시 있음)	金欄(蓮花唐草 鳳凰) 前後同	獅子雲紋 (무의 표시가 있고 소매상부 및 길하부 장식)	雲地紋(龍) 前後同 (무의 표시가 있고 소매상부 및 길하부 장식)	顯紋紗(龍) 前後同 (무의 표시가 있고 소매상부 및 길하부 장식)
치수	長4尺1寸 袖長 1尺4寸3分 背→袖口 3尺4寸	長4尺1寸 袖長 1尺5寸5分 背→袖口 3尺3寸8分	長3尺9寸 袖長 1尺3寸5分 背→袖口 3尺4寸3分	長4尺 袖長 1尺3寸 領中→袖口 3尺6寸5分	長4尺3寸5分 袖長 1尺3寸5分 領中→袖口 3尺4寸3分	長4尺2寸5分 袖長 1尺4寸3分 領中→袖口 3尺7寸5分

에 명칭이 분명치 않으나, 재료와 치수, 장식부늬 등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종류로는 玉冠이라고 명명된 花冠 1점, 佩玉 1쌍, 옷 전체를 朝鮮人衣라고 하여 각각 그려 놓은 10점이 있다. 그 10점 중에는 團領 6점, 帖裏 1점, 中單 1점, 裳 2점, 襪, 靴, 舄이 있다[18].

이 중 단령은 6점이다(표 8). 모두 적색이며 같은 모양으로 그 중에서 2점은 무 부분이 생략되었는데, 뒤로 접힌 것으로 보인다. 袖는 方形이며 기린과 봉황문을 달고 있는 것이 2점이며, 소매 상부까지 앞뒤에는 모란·당초·기린 무늬를 직금으로 장식된 것 1점, 길 중심에서 스란까지 사자용문·용운문·용문 등을 장식한 것이 3점이다. 본 유물들은 文宗 즉위년(1450)[19]의 하사 물목 중 紵絲織金胸背麒麟紅과 織錦胸背麒麟綠 각 一匹 및 織錦胸背獅子紅二匹…과, 言

17) *大韓禮典* 圖說.
18) *Ibid.*, p. 107.
19) *文宗實錄* 卷3, 文宗 卽位年 8月 甲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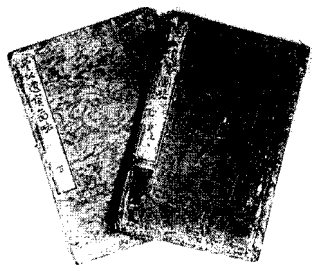
祖 39年(1606) 蟒龍衣[20]의 기록들로 볼 때 明에서 하사된 필단으로 만든 곤룡포로 보고[21] 있으나 이 6점 중 왕의 것은 2점의 方形補를 달고 있는 것 이외의 4점으로 추정된다.

2.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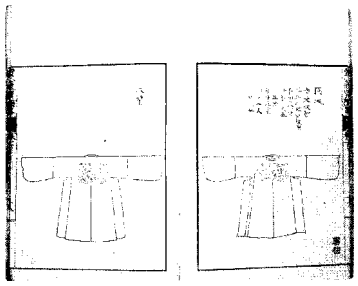
국립고궁박물관에는 英親王의 다홍색 곤룡포가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1897년 황제로 등극한 고종이 '黃龍袍'를 입기 시작하였는데,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황룡포가 현재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 세종대학교 소장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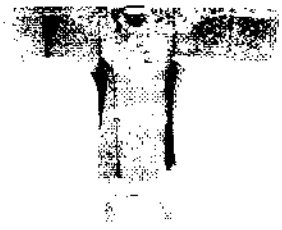
곤룡포는 2점이 소장되어 있다. 한 점은 소매가 넓은 두리소매(그림 20)이다. 다른 한 점은 소매가 좁은 窄袖袍로서 『궁중불긔』의 '소뇽포'일 가능성이



〈그림 18〉『豊公遺寶圖略』(*秀吉と文祿・慶長の役*(2007), p. 63).



〈그림 19〉『豊公遺寶圖略』(펼친모습) (*秀吉と文祿・慶長の役*(2007), p. 63).



〈그림 20〉朝鮮人衣 (*特別展 豊臣家の名寶* (1997), p. 99).

있으며,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매가 넓은 袍만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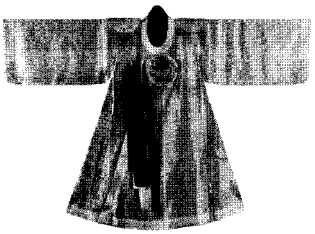
소매가 넓은 袍는 순종황제가 입으셨던 것으로 곤룡포의 겉은 황색, 안은 다홍색 운보문사, 동정은 다홍색 은조사로 만들었다. 길이는 127cm, 화장은 95cm이다. 補는 지름이 19cm이며 2쌍의 4점인데, 어깨의 한 쌍은 복원된 것이다. 補의 용 모양은 앞과 뒤 것은 서로 대칭되며, 앞 중앙에는 해를 상징하는 붉은색의 원형, 뒤의 보에는 달을 상징하는 흰색의 원형이 있는데, 이는 황제의 상징인 일원문을 묘사한 것이다. 익선관은 모체와 양각이 모두 자색의 비단으로 겉을 쌌으며, 높이는 18cm, 지름은 17cm이다[22](그림 21~22).

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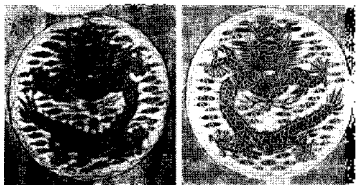
1922년 英親王이 일본에서 혼례한 후 王妃와 함께 귀국하여 純宗을 배알할 때 입었던 곤룡포이다. 겉은 홍색, 안은 남색의 雲寶紋紗로 만들었다. 길이는 119cm이고 화장 98.5cm이다. 補의 지름은 21cm이며, 어깨부분 한 쌍의 용 모양은 서로 마주 보게 대칭으로 되어 있다. 익선관의 높이는 20cm, 지름은 20cm이며, 옥대 길이는 114cm이다. 목화의 겉감은 黑緞이며, 안감은 백색의 氈으로 되어 있다(그림 23~26).

〈그림 27〉의 紫的龍袍는 왕손에게 입히기 위해 미리 지어 놓았던 것으로 착용 흔적이 없다. 겉감은 자적색의 도류문단이며 안감은 홍색 칠보운문사로 만들었다. 길이는 66cm, 화장은 50cm이다. 補의 지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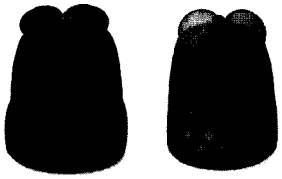
20) *宣祖實錄* 卷196, 宣祖 39年 2月 壬子.
21) 朴聖實, *Op. cit.*, p. 113.
22) 문화재청, *문화재대관*, (문화재청, 2006), pp. 59-60, p. 26.



〈그림 21〉 黃龍袍.
중요민속자료 제58호[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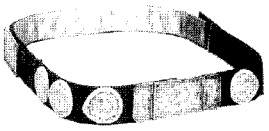
〈그림 21-1〉 補[23].



〈그림 22〉 翼善冠.
중요민속자료 제 44호[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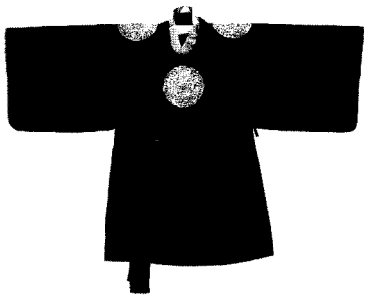
〈그림 23〉 赭龍袍[24].

〈그림 24〉 翼善冠[24].



〈그림 25〉 玉帶[24].

〈그림 26〉 木靴[24].



〈그림 27〉 紫的龍袍[24].

11cm이며 2쌍 4점의 용 무늬가 모두 같다[25].

3. 繪畵 및 寫眞

1) 繪畵

太祖御眞과 英祖御眞 및 《奉使圖》[26]에서 확인된

23) 세종대학교 소장 유물 (문화재대관, 2006), p. 59, p. 26).
2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 (金英淑, 2002), *朝鮮後期 宮中服飾*, p. 18, p. 20, p. 22, p. 23, p. 116).
25) 金英淑, *朝鮮後期 宮中服飾*, (서울: 辛西, 2002), pp. 237-239, p. 265.
26) 《奉使圖》는 중국반즉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청나라 아극돈이 英祖 1년(1725) 3월에 영조대왕 책봉식에 부사자격으로 참여하고 돌아가 그해 6월에 만든 것이다. 이는 20폭의 그림으로 된 그림책과 시와 발문으로 엮은 글책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 29cm, 세로 46.5cm이고, 매폭의 그림은 가로 51cm, 세로 40cm이다. 그림 20폭 중 앞의 두 폭을 제외한 나머지 18폭은 모두 조선의 풍경으로 18세기 초 조선왕조의 역사, 사회, 민속 연구의 중요한 그림 자료이다.

다(그림 28~30). 그 외에 肅宗代 39년(1713)에 곤룡포 차림으로 어진을 그렸다는 기록이 있으나, 남아 있지는 않다.

태조어진의 곤룡포 색은 아청색인데, 이는 관복이 제도화되기 전이나 誥命을 받기 전으로 추정[27]하고 있다. 또한, 영조의 홍색 곤룡포는 淸 사신 阿克敦이 그린 《奉使圖》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영조의 곤룡포는 용문이 양 어깨와 가슴 · 등 뿐 아니라 옷자락까지 표현되어 있으나, 외국 사신이 그렸다는 한계점[28]이 있다. 그러나 순조가 하사한 곤룡포로 제작되었다고 口傳되고 있는 선암사 소장 '쌍룡문가사'를 통해 용문을 직성한 괴륙일 가능성[29]은 있지만, 이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는다.

2) 寫眞

사진은 高宗, 純宗, 英親王이 있다. 〈그림 31〉에서 고종과 순종의 곤룡포 색은 같은 다홍색으로 보인다. 〈그림 32〉에서 순종의 곤룡포는 다홍색의 운보문단으로 보이며, 다른 사진과는 달리 동정의 색이 다홍과 비슷한데 이것은 〈그림 33〉의 韓國皇帝陛下卽位紀

〈그림 28〉 太祖 御眞, 전북 전주 경기전 소장(*역대인물초상화대사전* (2003), p. 15).

〈그림 29〉 英祖 御眞,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역대인물초상화대사전* (2003), p.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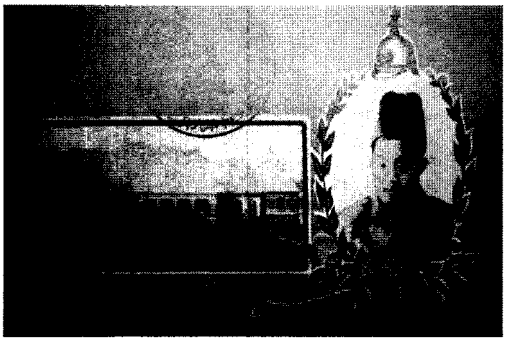
〈그림 30〉 곤룡포 착장 모습 《奉使圖》, (阿克敦(1999), *奉使圖* 14폭).

金 우표에서도 확인된다. 이 우표는 황제즉위기념임에도 불구하고 황이 아니고 다홍의 곤룡포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과제로 남긴다. 〈그림 34〉의

27) *역대인물초상화대사전*, (서울: 현암사, 2003), p. 14.
28) 조효숙, "『奉使圖』에 나타난 18세기의 服飾," *韓國服文化硏究*, (경원대학교, 2000), p. 95.
29) *중요민속자료조사보고서 선암사소장 가사 · 탁의* (문화재청, 2003), p. 24.
김대현, "그그進表裏進饌儀軌에 나타난 복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 46.

〈그림 31〉 高宗, 純宗 (*문화재대관* (2006), p. 27).

〈그림 32〉 純宗 (*(사진으로 보는) 朝鮮時代* (1994), p. 116).



〈그림 33〉 韓國皇帝陛下卽位紀念 우표 (*민족의 사진첩4* (2007), p. 72).

〈그림 34〉 高宗皇帝의 가족사진. 왼쪽부터 英親王, 純宗, 高宗, 純宗尹妃, 德惠翁主 (金英淑 (2002), *朝鮮後期 宮中服飾*, p. 15).

〈그림 35〉 高宗皇帝 (1918) (*마지막 황실, 잊혀진 대한제국* 2006), p. 9).

고종과 순종의 곤룡포는 황색으로 같으나 익선관의 색만 다르며, 英親王의 곤룡포는 다홍색으로 보인다. 〈그림 35〉에서 고종은 익선관아래 남바위를 쓰고 있다. 〈그림 36〉은 英親王의 유년시절 사진으로 空頂幘을 쓰고 자적도류단 용포를 입고 있다. 〈그림 37〉은 光華堂 소생으로 두 살에 요절한 堉 왕자로 空頂幘을 쓰고 紫的龍袍를 입었다.

〈그림 36〉 英親王 (金英淑 (2002), *朝鮮後期 宮中服飾*, p. 114).

〈그림 37〉 高宗의 왕자 堉 (金用淑 (1983). *朝鮮朝 宮中風俗 硏究*.

Ⅳ. 결 론

이상으로 中國의 『大明會典』과 定陵 出土遺物, 朝鮮時代의 文獻과 현재 남아 있는 遺物 및 繪畵와 寫眞을 통하여 王 · 王世子 · 王世孫 袞龍袍의 용도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王과 王世子 및 王世孫 袞龍袍의 용도 및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에 나타난 王의 곤룡포는 『朝鮮王朝實錄』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특히 先王의 곤룡포를 후대왕의 大斂이나 梓宮衣襨에 넣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곤룡포의 제도완성은 『國朝續五禮儀補序例』이며, 『豊公遺寶圖略』의 단령의 도식을 통해 蟒衣라는 기록과의 연관성을 제시해 본다.

王의 곤룡포는 明에게 世宗이 두 번이나 奏請을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가 世宗 26年(1444)에 처음 頒賜된 이후 中宗 · 明宗代까지 계속되었다. 世宗代에는 織金으로 색은 紅이며, 피륙은 紵絲 · 紗 · 羅이다. 이와 같이 곤룡포는 면복과 같이 의례적인 行事로 卽位初에 또는 주청에 의해서 반드시 하사되는 것은 아니었다. 곤룡포는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여 중국에서 頒賜 · 조서나 칙시맞이 · 망배례 · 배표의 · 사신맞이 · 敎書頒降儀 · 종묘 참배 · 관례나 책례 · 연향 · 殮襲衣 등에 다양한 용도로 착용하였는데, 대한제국 반포이후 皇帝는 황색으로 바뀌었다. 시복은 상복인 곤룡포를 사여 받기 전에 착용한 것으로 袞龍袍를 頒賜 받기 前인 太宗과 世宗代에 기록이 집중적으로 보이며 文宗과 景宗代에 한 건씩 보인다.

王世子의 곤룡포의 색은 中宗代까지 아청이었으나, 宣祖 27年(1594)까지 적색을 사용하다가 宣祖 29年(1596)에는 흑색으로 바뀌게 되고 이후 아청색을 착용하여 왕의 복색과 차등을 두었음을 알 수 있으며, 대한제국 시기에는 적색을 입었다. 한편, 王世子의 시복은 칙서 맞이, 음복연의, 사신맞이, 조참의, 문소전 추석제, 飮福宴衣, 탄일조하의, 大殿獻壽儀, 어가맞이 등에 착용하였는데, 太宗代부터 世宗과 世祖代에 집중적으로 기록되며, 光海君代부터 純宗代까지는 주로 冠禮시 논의되기도 하였다. 특히 현종 11년(1670) 2월에 '현재의 시복은 바로 龍袍인데…'라고 하여 朝鮮時代 中期에서 後期에 이르러서는 常服과 같은 격으로 변천된 것을 알 수 있다.

王世孫의 곤룡포에 대한 기록은 『正祖孝懿后嘉禮都監儀軌』와 『國朝續五禮儀補序例』 王世孫講書服制度가 있다. 이 중 王世孫講書服制度에 袞龍袍의 圖說이 있다. 翼善冠과 靴는 왕세자의 것과 같으며 틀린 점은 袞龍袍가 黑緞으로 만든 점이다. 여름에는 黑紗를 쓴다. 制式은 왕세자의 곤룡포와 같으나, 補는 金三爪方龍을 곤룡포의 앞뒤에 붙였으나 어깨에는 없다. 帶는 水精으로 하였는데 무늬를 새기지 않은 것은 왕세자와 같으며, 靑緞으로 싸고 금으로 긋고 있다.

둘째, 유물은 세종대학교와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데 國本의 『궁중볼거리』에 나온 '소룡포'는 세종대

학교 착수형의 곤룡포가 아닐까 한다. 補는 2쌍 4점으로 세종대학교 소장의 황룡포에는 보는 앞뒤가 대칭으로 황제를 상징하는 日月紋이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자적용포는 4점의 무늬가 같지만 다른 유물의 보는 어깨의 한 쌍의 무늬가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셋째, 회화로는 어진 및 《奉使圖》, 사진 자료는 末期의 것이 있다. 이 중 《奉使圖》의 곤룡포는 용문을 직성한 피륙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나, 다음 연구 과제로 남긴다. 그리고 순종의 사진과 韓國皇帝陛下卽位紀念 우표와 등에서의 곤룡포과 동정의 색에 대한 연구도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國朝五禮儀補序例.

國婚定例.

大明會典.

尙方定例.

朝鮮王朝實錄.

高光林 (1974). "袞龍袍에 關한 硏究." *仁川敎育大學校論文集*, 9卷.

高宮子 (2002). "조선 시대 피륙[織物]의 무늬." *朝鮮時代 피륙[織物]의 무늬*.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金美子 (1978). "袞龍袍의 形態에 對한 硏究.".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第7號.

金英淑 (2002). *朝鮮後期 宮中服飾*. 서울: 辛西.

金用淑 (1983). *朝鮮朝 宮中風俗 硏究*. 서울: 一志社.

김태연 (2003). "己巳進表裏進饌儀軌에 나타난 복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마지막 황실 잊혀진 대한제국 (2006). 서울대학교박물관.

문공화 (2004). "조선 시대 團領 着用規例와 實例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화재청 (2003). *중요민속자료조사보고서 선암사소장 가사 · 탁의*. 문화재청.

문화재청 (2006). *문화재대관*. 문화재청.

민족의 사진첩 4 (2007). 서울: 서문당.

朴聖實 (1994). "豊公遺寶圖略에 나타난 宣祖朝 王室服飾." *韓國服飾* 第12號.

(사진으로 보는)朝鮮時代 : 생활과 풍속-속 (1994). 서울: 서문당.

秀吉と文祿・慶長の役 (2007). 明護屋成博物館.

阿克敦 (1999). *奉使圖*. 沈陽 : 遼寧民族出版社.

역대인물초상화대사전 (2003). 서울: 현암사.

조효숙 (2000). "『奉使圖』에 나타난 18세기의 服飾." *亞細亞文化硏究* (경원대학교).

劉頌玉 (1992).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서울: 修學社.

中國織繡服飾全集 第3卷 第4卷 歷代服飾卷 上 (2004). 天津人民美術出版社.

特別展 豊臣家の名寶 (1997). 大阪城天守閣.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4). *古文書集成 12-藏書閣編 Ⅲ-*.

黃能馥・陳娟娟 (1999). *中華歷代服飾藝術*. 中國旅遊出版社.

黃有福 (1999). "淸阿克敦《奉使圖》初探." *亞細亞文化硏究*(경원대학교).